

2027
고2 문학
미래엔

2027 고2 문학 미래엔 | 1(2)(2) 스노우맨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번 단원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눈’, ‘쿠폰’ 등의 상징적 소재가 지니는 의미와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사 갈래의 특징과 이 작품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며 작품 속 ‘남자’가 겪고 있는 갈등 양상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렇게 열성적이던 유 대리가, 출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속사정이야 어쨌든 남자의 입장에서 같이 출근할 동료가 남아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유 대리를 만나야 출근이 수월해질 텐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걸 보면 유 대리도 출근하기 위해서 눈을 파내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유 대리가 먼저 회사에 도착할까 봐 남자는 마음이 급해졌다.

(나)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샵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여보세요.”

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상대가 한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하면서 나눈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툭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

(라)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 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 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마)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샵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 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껌벅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 「스노우맨」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이 자신이 겪은 사건과 이에 따른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② 등장인물이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작품의 주인공이 자신이 겪었던 사건의 원인을 찾아가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관찰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2. <보기>는 윗글의 앞부분 줄거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원인 ‘남자’는 인사 발령에 기대를 걸고 더 이상 승진에서 밀려나면 곤란하다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지만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초조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있다가 이튿날 길을 나선 남자는 눈 더미 속에서 찾은 삼 한 자루로 눈을 파내며 회사로 향한다.

- ① 남자는 승진 대상인 유 대리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그가 무사히 회사에 도착하기를 응원하고 있다.
- ② 남자가 폭설 속에서도 삼으로 눈을 치우며 출근을 강행하는 것은 인사 발령과 승진에 대한 중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남자는 과장의 출근 독촉 문자를 받고 분노를 느끼며, 눈 속에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④ 남자가 중국집에 전화를 건 것은 배달원에게 자신이 처한 험난한 출근길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다.

- ⑤ 남자는 눈을 치우는 배달원의 리듬감 있는 동작을 보며 자신도 경쟁 사회에서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성찰을 하고 있다.

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폭설로 출근하지 못하는 남자의 처지를 염려하는 직장 상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 ② ㉡: 배달이 불가능한 험난한 기상 상황을 핑계로 남자의 주문을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 ③ ㉢: 남자의 절박한 상황에 연민을 느끼며, 어떻게 해서든 배달을 해주려는 주인의 희생정신이 나타난다.
- ④ ㉣: 출근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흘러가는 추상적인 시간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남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4. <보기>는 윗글의 등장인물 설정 방식에 대한 안내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고유한 이름 대신 ‘남자’, ‘유 대리’, ‘과장’, ‘배달원’ 등 성별이나 직급, 역할 등으로만 불린다. 작가는 이러한 익명성과 명명 방식을 통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과 현대 사회의 단면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남자’라는 호칭은 그가 특별한 개성을 지닌 개인이 아니라, 경쟁 사회 속에서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대변함을 보여 준다.
- ②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직급으로만 표현한 것은 서열이 중심이 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의 삭막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 ③ ‘유 대리’라는 호칭은 그가 회사 내에서 ‘남자’와 협력하여 부조리한 현실에 대항하는 주도적인 인물임을 부각한다.
- ④ ‘과장’은 폭설 속에서도 출근을 독촉하며 일상에 압박을 주는 인물로, 경쟁 사회 체제를 대변한다.
- 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폭설 속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눈을 파내고 배달하는 모습은 생계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시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샅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샅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일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시 샅을 꽂았다. 한 샅 떼내고 나자 또 샅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 정보지 함이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룡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뺐다.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목소리의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벨 소리이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 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 버렸다.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떠내자 다시 시작되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떠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샅을 움직였다. 손으로 눈을 쓸어 낸 뒤에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 전화였고 공공로롭게도 뽀뽀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샅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 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양복 웃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 양손 다 눈을 그러쥐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몸을 동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로 봐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 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기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 「스노우맨」

5. 윗글에 나타난 ‘눈’의 의미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남자가 출근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
- ㄴ. 남자와 ‘유 대리’의 경쟁
- ㄷ. 파괴되어 가는 자연의 목소리
- ㄹ. 현대인들이 극복해야 하는 삶의 압박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 윗글의 서술상 특징 및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장된 상황 설정을 통해 현대 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②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이 느끼는 압박감과 중압감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지명을 빈번하게 노출하여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의 사실성을 더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의 내면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감각적인 묘사를 활용하여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 인물의 피로감과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7. 다음 중 ㉠의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초보은(結草報恩)
-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 ③ 진퇴양난(進退兩難)
- ④ 고진감래(苦盡甘來)
- ⑤ 전전반측(輾轉反側)

【8~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원인 ‘남자’는 인사 발령에 기대를 걸고 더 이상 승진에서 밀려나면 곤란하다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지만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초조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있다가 이튿날 길을 나선 남자는 눈 더미 속에서 찾은 삼 한 자루로 눈을 파내며 회사로 향한다. 상사의 출근 재촉에 초조함을 느끼던 남자는 유력한 과장 후보이자 일밖에 모르는 유 대리로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함을 느낀다.

(가) 그렇게 열성적이던 유 대리가, 출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속사정이야 어떻든 남자의 입장에서는 같이 출근할 동료가 남아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유 대리를 만나야 출근이 수월해질 텐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걸 보면 유 대리로 출근하기 위해서 눈을 파내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유 대리가 먼저 회사에 도착할까 봐 남자는 마음이 급해졌다.

시내 쪽으로 나오자 눈을 파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다. 유 대리가 사는 오피스텔은 남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지난봄에 대리들 몇이 거기 물려가서 술을 마셨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오피스텔은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다. 이런 건 얼마나? 실평수는 어떻게 돼? 집을 둘러보며 다들 질문을 던졌다. 이런 데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남자는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다. 그때도 유 대리는 빈 병이 늘어날 때마다 출근 걱정을 해서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나)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남자의 삼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삼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삼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홀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를 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굼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B]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로.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라)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삼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깜빡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였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마)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렸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 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스노우맨」

8. 밑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가 현실에 존재할 법한 세계를 허구적으로 꾸며 낸 것이다.
- ② 작품 속에 작가를 대신하는 대리인인 서술자를 설정하여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 ③ 특정 공간과 시간적 배경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④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서사 구조를 통해 인물과 사건의 양상을 유기적으로 보여 준다.
- ⑤ 작가의 실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삶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을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기록한다.

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자는 유 대리의 오피스텔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실 때 출근을 걱정하는 유 대리의 태도를 옹호했다.
- ② 남자는 과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삼질을 멈추고 눈 속에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했다.
- ③ 남자는 짜장면을 먹고 나면 다시 회사로 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④ 중국집 주인은 폭설이 내린 바깥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남자의 배달 주문을 조심스럽게 수락했다.
- ⑤ 배달원은 악천후 속에 배달을 시킨 남자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짜장면을 건네고 서둘러 돌아갔다.

10. [A]와 [B]의 서술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B]는 구체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인물의 내면 의식을 위주로, [B]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위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A]는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B]는 현재의 행동을 통해 사건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A]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B]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⑤ [A]는 인물 간의 대립을, [B]는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11. 윗글에 등장하는 ‘쿠폰 한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현실적이고 극한적인 재난 상황과 대비되는 일상적 소재를 배치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 ② 폭설 속에 갇힌 남자가 앞으로 겪게 될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작용한다.
- ③ 남자와 배달원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살아간다는 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 ④ 중국집 사장이 배달원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과 위계질서를 상징한다.
- ⑤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현대 사회의 삭막함을 비판한다.

1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자는 유 대리가 자신보다 먼저 회사에 도착하여 승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바심을 낸다.
- ② 유 대리는 과거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다음 날 출근을 걱정할 만큼 직장 생활에 얽매어 있던 인물이다.
- ③ 유 대리는 폭설 속에서 남자가 출근하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
- ④ 과장은 폭설로 인해 걷기조차 힘든 상황임에도 남자에게 문자를 보내 출근을 독촉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
- ⑤ 배달원은 악천후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눈을 뚫고 배달을 수행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나타난 갈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설의 갈등은 인물 내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인 내적 갈등과 인물과 외부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독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① 출근길을 덮친 ‘눈’과 어떻게든 길을 내어 출근을 강행하려는 남자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나타난다.
- ② 승진을 두고 경쟁하는 남자와 유 대리 사이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 ③ 열악한 환경에서도 짜장면을 먹겠다는 남자와 생계 때문에 억지로 배달을 해야 하는 배달원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 ④ 회사에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과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 사이의 남자와 회사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 ⑤ 경쟁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자와 사회와의 갈등이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전달한다.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주인공이 사건의 원인을 추적하는 구성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2. [정답] ②

<보기>에서 남자가 ‘인사 발령에 기대를 걸고 더 이상 승진에서 밀려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에서 ‘유 대리가 먼저 회사에 도착할까 봐 남자는 마음이 급해졌다’는 부분과 (나)에서 과장의 재촉 문자에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는 부분을 통해 남자가 무리하면서까지 출근하려고 하는 것이 승진 경쟁 및 직장 생활의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① (가)에서 남자는 같이 출근할 동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안도감을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유 대리가 먼저 도착할까 봐 초조해하고 있으므로 그를 응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나)에서 남자가 눈 속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은 눈을 치우는 속도를 높이다가 체력적으로 지쳤기 때문이지, 회사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 ④ (다)에서 남자가 중국집에 전화를 건 것은 배고픔을 느끼고 ‘밀저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음식을 시킨 것이지,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 ⑤ (마)에서 남자는 언 눈을 밀가루처럼 가볍게 파내며 다가오는 배달원의 모습에 놀라 당황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삶의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성찰을 하고 있지는 않다.

3. [정답] ④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 남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마치 쌓일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① 폭설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도 타인의 사정에는 무감각한 채 출근을 독촉하는 과장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배달할 장소의 주소를 묻는 것이지, 주문을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 ③ 길을 찾기조차 어려운 폭설 속에서도 배달이 된다고 대답한 것일 뿐, 주인의 희생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신속 배달’이 적힌 안전모를 쓴 배달원의 모습을 통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을 보여 준다. ‘신속 배달’이라는 문구 자체가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4. [정답] ③

‘유 대리’는 출근에 목숨을 걸고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눈 속에 파묻혀 도태되고 마는 인물로, 남자와 승진을 두고 다투는 경쟁 상대이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항하여 남자와 협력하는 인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남자’라는 호칭은 그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대표함을 보여 주는 장치이다.
- ②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대리’, ‘과장’ 등 직급으로만 부르는 것은 서열을 중시하는 경쟁 사회의 단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④ ‘과장’은 천재지변의 상황 속에서도 출근을 재촉하고 ‘남자’에게 심리적 중압감을 주는 인물로, 경쟁 사회 체제를 대변한다.
- ⑤ 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눈을 치우고 배달을 해내는 ‘안전모를 쓴 배달원’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5. [정답] ②

ㄱ. 남자는 출근을 위해 눈을 치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눈을 남자의 출근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ㄹ. 눈은 현대인들이 극복해야 하는 삶의 압박과 부담감을 의미한다.

ㄴ. 눈 자체가 남자와 '유 대리'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ㄷ. 눈이 자연물인 것은 맞지만, 작품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눈을 단순히 자연의 목소리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③, ④, ⑤ 적절한 것만을 짝지은 것이 아니다.

6. [정답] ③

이 소설은 폭설이 내린 익명의 현대 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명을 노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① 폭설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삼질을 하며 길을 내거나, 직장 동료가 눈 속에 파묻혀 언 상태로 발견되는 과장된 상황 설정을 통해 무한 경쟁 사회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있다.

② 출근길을 가로막는 '눈'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경쟁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압박과 부담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과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라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극도의 추위와 피로로 인해 쓰러져 가는 남자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7. [정답] ③

㉠은 쏟아진 눈을 파내며 회사로 향하던 남자가 너무 지친 나머지 앞으로 더 나아가기에도 막막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도 너무 멀리 와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를 보여 준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곤경에 빠졌음을 뜻하므로 남자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①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어 혼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의미이다.

②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뜻이다.

④ 고진감래(苦盡甘來)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다.

⑤ 전전반측(輾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

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8. [정답] ⑤

윗글은 소설로서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작가의 실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깨달음이나 교훈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은 수필과 같은 교술 갈래의 특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서사 갈래는 작가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꾸며낸 허구의 문학이다.

② 서사 갈래는 작가가 창조한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를 내세워 인물과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특징을 지닌다.

③ 서사 갈래는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④ 서사 갈래는 일반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 구성을 거치며 이를 통해 유기적인 서사 구조를 갖춘다.

9. [정답] ③

(나)에서 남자는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라고 생각하며 휴대 전화를 꺼내 중국집에 전화를 건다. 이를 통해 남자가 음식을 먹고 출근길을 나아갈 힘을 얻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① (가)에서 유 대리는 빈 병이 늘어날 때마다 출근 걱정을 하여 동료들의 빈축을 샀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그를 옹호했다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② (나)에서 남자는 눈 속에 드러누워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긴 했으나, 실제로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쭈그리고 앉아서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④ (다)에서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주소를 묻고 배달이 된다고 대답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라)에서 남자가 이런 날씨에도 배달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하자, 배달원은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라고 덤덤하게 대답했을 뿐 남자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10. [정답] ②

[A]에는 유 대리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남자의 내면 심리가, [B]에는 남자와 중국집 주인의 주문을 위한 대화가 제시되어 있다.

① [A]에 유 대리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보다는 남자의 심리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B]에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과 같은 남자의 주소 설명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 [A]에 과거의 회상이나 사건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며, [B]는 사건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보다는 주문을 접수하는 대화 상황이다.

④ [A]와 [B] 모두 공간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A]에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B]는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11. 정답 ①

폭설로 인해 출근은 물론 걷기조차 힘든 재난 상황에서 배달된 짜장면 위에 놓인 ‘쿠폰 한 장’은 평범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이다. 생존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엉뚱한 상황은 작품의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쿠폰은 남자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③ 남자와 배달원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은 맞으나 쿠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쿠폰이 중국집 사장이 배달원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내용은 지문에서 추론할 수 없다.

⑤ 쿠폰이 현대 사회의 삭막함을 비판하는 소재는 아니다.

12. 정답 ③

유 대리가 남자의 출근을 방해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① (가)에서 남자는 ‘유 대리가 먼저 회사에 도착할까 봐 마음이 급해졌다’라고 생각하며, 동료인 유 대리보다 출근이 늦어져 조직 내 경쟁에서 밀려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② (가)의 ‘빈 병이 늘어날 때마다 출근 걱정을 해서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④ 과장은 ‘빨리 안 오고 뭐 해.’라는 문자를 보내며 남자에게 심리적 중압감을 가하고 있다.

⑤ (라)에서 배달원은 폭설 속에서도 덤덤하게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라고 대답하며 묵묵히 자신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13. 정답 ⑤

남자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남자와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① ‘눈’이 남자의 출근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다.

② 남자와 유 대리 사이의 갈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보기>에 따르면 내적 갈등은 ‘인물 내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배달원과 남자 사이의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남자가 회사에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과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심리적 갈등이자 내적 갈등이다.